



국제경제정보

국제경제실
 신흥팀 배상인 조사역(4282)
 신흥팀 오용연 조사역(5268)

최근 중국-브라질 환율논쟁 배경과 시사점

- ◆ 그동안 중·미간 환율논쟁에서 보호주의에 반대하는 중국의 입장을 지지했던 브라질이 금년 9월에는 이례적으로 WTO에 '통화덤핑제안'을 제출하고 환율 조작국에 대한 규제방안 마련을 촉구
- ◆ 브라질은 자국 제품의 세계시장 점유율이 하락하고 대중국 공산품 무역수지의 적자가 확대됨에 따른 제조업 기반의 약화가 위안화 저평가에 기인한다는 입장이며 2010년 이후에는 중국의 자원확보에 대한 우려도 증대
- ◆ 중국은 브라질의 주장을 부분적으로 수용하면서도 환율문제에 있어 브라질과 미국이 공조하는 모습을 보이는 데는 경계감을 표시하는 한편 그동안 위안화가 지속적으로 절상되고 중국이 브라질의 성장에 기여하여 왔음을 강조
- ◆ 금번 환율논쟁은 위안화 저평가에 대한 국제적 인식을 반영하고 있으나 브라질 헤알화의 가파른 가치상승은 브라질 정부가 물가불안 해소 등 내부사정 해결에 치중한 데도 기인한 것으로 평가됨
- ◆ 환율논쟁이 중·미 양자대립에서 중국 대 다수국의 대립으로 확대됨에 따라 향후 위안화의 절상 압력이 높아지고, 국가간 무역마찰이 격화될 전망이다. 국제무역에서도 보호주의 기조가 심화될 가능성이 증대

I 개요

- 브라질은 금년 9월 환율조작을 통해 수출경쟁력을 높이는 행위에 대한 규제방안 마련을 촉구하는 “통화덤핑제안(Currency-dumping Proposal)”을 WTO에 제출
 - 브라질 개발산업통상부 장관 피멘텔(Pimentel)은 동 제안이 특정국을 겨냥한 것은 아니지만 위안화의 저평가로 중국산 저가제품의 수입이 늘어 브라질의 산업기반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고 언급(2011.9월)

□ 브라질이 그동안 각종 이슈에서 중국과 긴밀한 공조체제를 유지*하면서 미국과는 다른 입장을 취해온 점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문제제기는 매우 이례적

* 브릭스 국가들은 WTO의 도하협정, 탄소세 논의, 국제기구 의결권 등에서 선진국에 대응하여 개발도상국의 공통 이익을 대변하여 왔으며 2009.6월 러시아 예카테린부르크, 2010.4월 브라질 브라질리아, 2011.4월 중국 하이난에서 1,2,3차 브릭스 정상회담을 개최

○ 브라질은 2010년까지는 위안화 환율수준을 이유로 보호주의를 강화하려는 미국에 반대하는 입장을 견지

주요국 경제규모 비교(2010년 기준)

(십억달러, 달러, 억명, 1,000km², 십억달러)

	미국	중국	브라질	인도	러시아
GDP규모	14,660	5,879	2,092	1,729	1,516
1인당 GDP	47,184	4,393	10,710	1,477	10,440
인구	3.12	13.4	1.91	12.1	1.43
국토면적	9,629	9,640	8,515	3,287	17,098
외환보유액(2011.10월)	-	3,202	350	312	517

자료: World Bank

□ 한편 WTO가 11.15일 브라질의 제안을 받아들여 WTO 규약에 따라 환율조작국을 처벌할 수 있는지 심사할 계획임을 발표(2012년 1분기중 회의 개최 예정)함에 따라 위안화 저평가에 관한 논란이 국제적으로 확대

○ WTO 규약은 회원국이 환율정책을 통해 다른 국가의 시장진입(market access)을 제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바 WTO는 설립(1995년) 이래 처음으로 회원국의 환율조작 해당 여부를 심사할 예정

○ 아울러 WTO는 회원국의 환율정책에 대해 직접 규제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수정하는 방안도 검토

— 중국이 이러한 규제를 거부할 경우 브라질 등 기타 국가는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보복관세를 부과할 수 있음

□ 금번의 환율논쟁은 신흥경제국인 브라질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향후 WTO의 결정에 따라 미국주도의 위안화 절상압력이 국제적으로 더욱 확대될 수 있다는 점에서 종래와 차원이 다르다는 평가가 지배적

⇒ 브라질의 위안화 절상요구 배경과 이에 대한 중국의 입장을 살펴보고 향후 국제무역 흐름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

II

브라질의 중국 위안화 절상요구 배경

- 브라질은 자국 제품의 세계시장 점유율이 하락하고 대중국 공산품 무역 수지의 적자가 확대됨에 따른 제조업 기반의 약화가 위안화 저평가에 기인한다는 입장*

* 기도 만테가(Guido Mantega, 브라질 재무장관)는 각국 정부가 자국 제품의 가격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자국 화폐의 가치를 낮추는 '환율전쟁(Currency War)'을 하고 있으며 특히 중국의 위안화 관리가 글로벌 무역을 왜곡시키고 있다고 비판(2011.9월)

- 특히 2010년부터 브라질내에서 중국의 자원확보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2011년 들어선 지우마 신정부는 중국과의 경제관계를 새롭게 정립하겠다는 태도를 견지

(헤알화와 비교한 위안화의 저평가)

- 양국의 외자유입상황이 비슷함에도 브라질 헤알화의 환율이 2004년 이후 크게 상승한 반면 중국 위안화 환율은 비교적 안정적으로 변동

- 헤알화는 2004~10년중 원자재 수출(수출중 원자재 비중 2010년 62%)이 확대되고 FDI 유입도 높은 수준을 보이면서 외자유입이 늘어난 결과 실질실효환율이 120% 상승(브라질은 99.1월부터 변동환율제도를 채택)

- 중국 등 신흥경제국의 경제발전으로 원자재 수요가 빠르게 늘어나면서 브라질 주요 수출품(2010년 수출비중: 철광석 14.6%, 석유 10.1%, 사탕수수 6.5%, 대두 5.6% 등)의 가격이 급등

실질실효환율



자료: JP Morgan

국제원자재 가격



자료: Bloomberg

- 반면 위안화는 정책당국이 관리변동환율제*를 통해 절상폭을 제한함에 따라 브라질보다 많은** 외자유입에도 불구하고 실질실효환율이 20% 상승하는 데 그침

* 중국정부는 위안화가 2008.7월 이후 사실상 미달러에 페그되어 2010.6월 환율 변동성 확대조치를 취하였으나 여전히 외환시장 개입 등을 통해 미 달러화에 대한 위안화의 일일변동폭을 제한(기준환율의 $\pm 0.5\%$)

** GDP 대비 무역수지와 FDI 순유입액 비율(2004~10년중)이 브라질은 각각 3.1%, 2.2%이나 중국은 4.9%, 3.8%임

(제조업 기반 약화)

□ 해외수출시장에서 중국의 점유율이 확대된 반면 브라질의 점유율은 하락하였으며, 중국에 대한 공산품 무역수지 적자규모가 확대되어 제조업 기반의 붕괴 우려가 확산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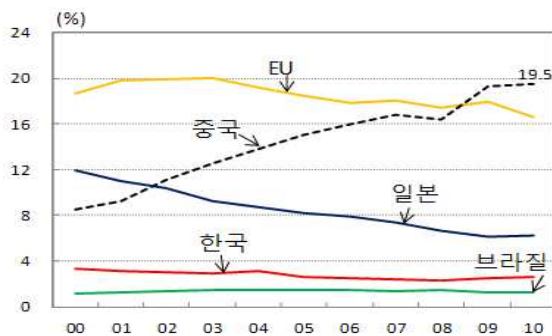
○ 브라질의 주요 수출시장인 미국, EU, 라틴아메리카 등에서 중국의 공산품 수출점유율이 크게 상승한 반면 브라질은 소폭 하락하였으며 공산품 무역수지 적자의 대부분이 중국과의 교역에서 발생

○ IMF(2011.6월)는 위안화 저평가가 브라질의 수출경쟁력에 부(-)의 효과*를 미친 것으로 평가함

* 중국의 존재 유무에 따른 브라질의 미국, EU 수출시장 점유율 차이로 '(실제 수출액-지난해와 동일한 시장점유율을 유지할 경우의 수출액)/실제수출액'으로 계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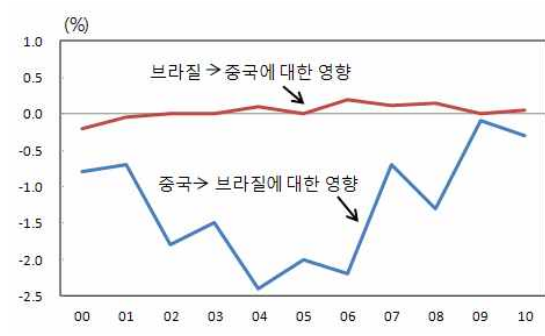
— 브라질의 수출 경쟁력(2002~09년 기준)은 위안화가 ① 헤알화에 대해 평가절하되면 미국, EU시장 모두에서, ② 미달러에 대해 평가절하되면 EU시장에서 하락되는 것으로 분석

미국 수입시장 점유율



자료: UN comtrade

중국의 브라질 수출경쟁력에 대한 영향



자료: IMF(2011.6월)

○ 브라질의 제조업비중(GDP 대비)은 산업공동화가 진행되고 있는 일본*보다도 낮은 상태로 제조업 붕괴와 네덜란드병**에 대한 우려가 확산

* 자세한 내용은 '최근 일본의 산업공동화 우려 증대 배경과 전망'(국제경제정보 제2011-42호, 2011.9월)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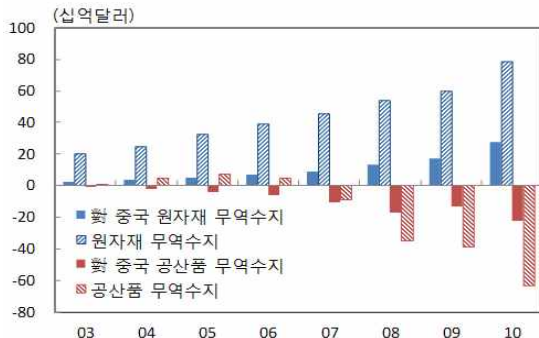
** 일반적으로 자원부국은 ① 자원개발이 확대되면서 노동이 자원개발 부문으로 이동(Direct-deindustrialization)하고, ② 비교역재의 가격 상승으로 실질환율이 오르는 데다 자원의 가격변동성이 높아져 기업의 투자가 둔화되고 제조업 경쟁력이 하락(Spending Effect)하는 네덜란드병(Dutch Disease)에 직면하기 쉬움

— 특히 내수판매 비중이 높은 브라질의 자동차 산업(브라질은 세계 6위의 자동차 생산국)도 수입차 판매가 증가하면서 성장세가 둔화

■ 수입차 판매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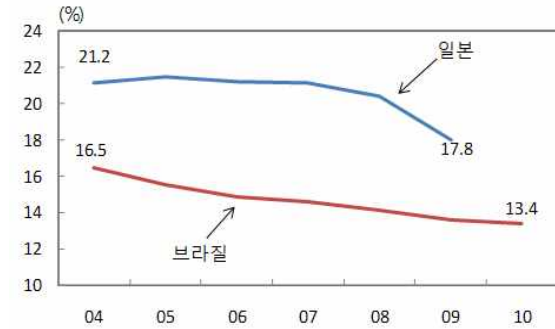
2008년	2011년(1~10월)
13.3%	23.0%

브라질 무역수지



자료: CEIC, UN contrade, World Bank

제조업의 GDP대비 비중



자료 : CEI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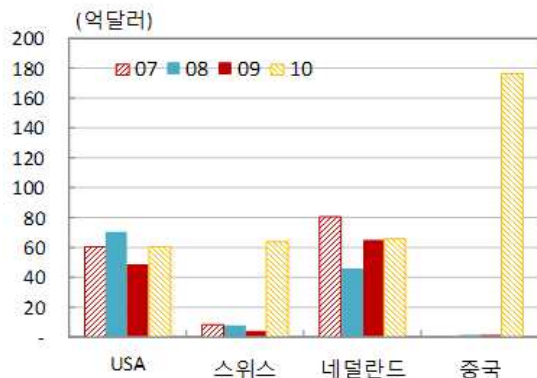
(중국의 자원확보에 대한 경계)

□ 중국이 브라질내 자원사업에만 집중 투자하고, 원자재의 수입에 치중함에 따라 중국의 자원확보에 대한 경계심이 고조

○ 2010년부터 중국기업의 대(對)브라질 투자가 급격히 늘었는데 대부분이 자원개발에 집중되면서 자원의 중국 집중과 자연훼손에 대한 우려가 확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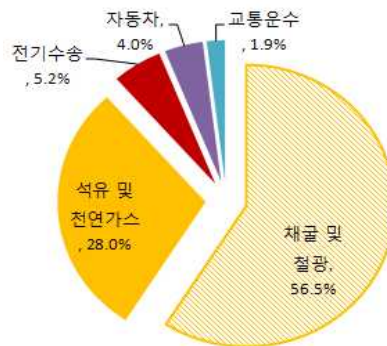
* 2010년 171.7억달러: 시노펙(중국석유화공, 10월) 71억달러, 우한제철(4월) 39억달러, 시노캠(중국석유화학, 5월) 31억달러 등

대브라질 FDI(지분투자)



자료: CEIC, KOTRA(2011.4월)

중국의 산업별 대브라질 FDI(03~10년)



자료 : 브라질공업무역발전부(2011.4월)

(새 정부의 중국에 대한 인식 변화)

□ 금년에 들어선 신 정부(2003~10년 룰라 다 시우바 → 2011년 지우마 호세프)는 중국과의 불균형 관계를 시정하겠다는 입장을 견지

○ 룰라정부는 중국과의 경제협력을 중시하며 보호주의를 배격하는 중국의 입장을 지지*한 반면한 반면 지우마 대통령은 무역 상대국의 희생을 강요하는 환율 조작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주장(FT, 9.21일)

* 룰라는 “공동행동계획(Joint Action Plan) 2010-14”에 따라 중국과 정치, 에너지, 농업 등 다각도에서 상호 협조하고 공동으로 보호주의에 반대할 것임을 결의

— 룰라 전대통령은 선진국의 양적완화 정책으로 유동성이 신흥국으로 유입되면서 헤알화 가치가 급등했다고 주장하며 환율전쟁에서 중국을 지지*

* 룰라는 워싱턴 컨센서스에 대항하는 반미감정이 높았던 시기에 대통령에 당선되어 태생적으로 친미정책을 추진하기 어려웠던 한계가 있었음

— 반면 지우마는 현재의 글로벌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자국 시장을 확대하고 보호할 것이며 브라질 산업과 일자리를 위협하는 공격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독립기념일 성명서, 9.7일)

□ 더욱이 브라질 내부적으로는 제조업 기반의 재건을 위해 국내산업을 상당기간 동안 보호할 필요가 제기되고 소비의 GDP 대비 비중이 높아 중국에 의존하지 않고도 내수시장만으로 경제성장이 가능하다는 주장이 확산된 것도 지우마 정부의 입장을 뒷받침

	브라질	인도	러시아	중국
■ 최종소비의 GDP대비 비중	83.5%	73.9%	69.0%	50.2%

○ 브라질 수출이 중국에 의존적이지만 경제는 독립적이어서 브라질이 중국에 비해 협상력면에서 우위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BBVA의 Economist Alicia Garcia, 2011.9월)

III

중국의 입장

□ 중국은 브라질의 입장을 부분적으로 수용하면서도 환율문제에 있어 브라질과 미국이 공조하는 모습을 보이는 데 대해 경계감을 표시하는 한편 그동안 위안화가 지속적으로 절상되고 중국이 브라질의 성장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여 왔음을 강조

(브라질 입장의 부분적 수용)

- 중국은 미국의 위안화 저평가 주장에 대한 대응*과 달리 금번 브라질의 이의제기에 대해 공식적으로 반박하지 않고 관세인하를 통한 수입촉진으로 무역불균형을 해소해 나갈 계획임을 발표(11.16일)

* 중국인민은행은 미 상원의 '2011 환율감시개혁법안(2011.10월, 통화가 저평가된 국가들로부터의 수입품에 대해 보복관세를 부과)'에 대해 ① 미국의 무역적자는 위안화 저평가 때문이 아닌 낮은 저축률 등 내부 문제에 기인하며, ② 미국이 중국을 비난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발표(위안화 환율결정시스템 개혁과정 및 전망, 10.11일)

- 그동안 브라질과의 교역에서 중국의 유리한 위치를 유지하는 측면에서 브라질의 문제제기를 부분적으로 수용하는 실리를 추구

— 건설, 자동차 등 생산에 필요한 철광석의 브라질에 대한 의존도(16.7%)가 높고, 브라질 유전 개발에 참여를 희망하고 있어 브라질과의 관계 악화는 중국의 자원 외교에 큰 타격을 줄 가능성

- 그러나 브라질이 글로벌 불균형의 원인이 미국에도 있음을 간과하고 미국과 동일한 입장에서 문제를 제기한 데 대해서는 경계감을 표시*

* 중국외환투자연구원 탄야링(譚雅玲) 원장은 "브라질은 미국의 힘에 대항하지 못하고 중국에 창끝을 든 것이다."라고 하여 미국에 책임을 전가(11.17일)

(위안화의 절상기조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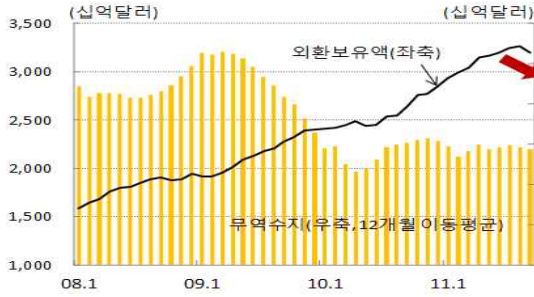
- 중국은 2005.7월 환율제도 개혁(사실상의 고정환율제 → 관리변동환율제) 이후 현재까지 위안화가 지속적으로 절상되어 왔음을 강조

- 중국 상무부 선단양(沈丹陽) 대변인은 위안화가 2006~10년중 연평균 4% 가량 절상된 결과 현 위안화 가치가 적정수준이라고 주장(11.16일)

— 2010년 중국의 무역수지 흑자(1,815억달러)의 GDP 대비 비중은 3%로 독일(2,049억달러, 6%), 러시아(1,517억달러, 10%)보다 낮은 등 대체로 균형에 근접해 있으며, 최근에는 외환보유액도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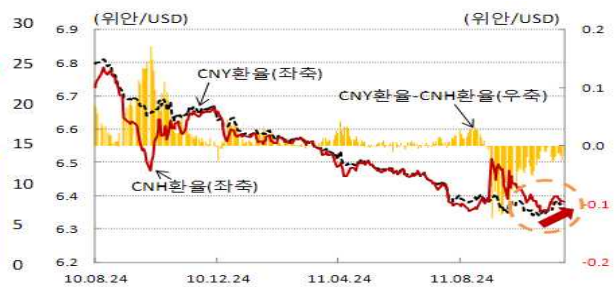
— 금번 유럽 국가채무 위기 이후 중국내 위안화(CNY)환율이 시장상황에 따라 결정되는 홍콩내 위안화(CNH)환율을 하회하는 것은 위안화가 상대적으로 고평가 되어 있음을 시사

중국 무역수지 및 외환보유액



자료: CEIC

CNY-CNHP 환율



자료: CEIC

(브라질 성장을 위한 중국의 기여 강조)

□ 그동안 중국은 브라질의 경제성장 및 물가안정에 긍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인민일보, 11.18일)

○ 중국은 2009년 이후 브라질의 최대 수입국이 되었으며 2010년부터는 브라질에 대한 제1의 FDI 국가로 브라질의 산업 발전에 다각적으로 기여

— 브라질의 대중무역수지가 철광석, 대두 등 수출에 기인하여 흑자기조(2009년 43억달러, 2010년 52억달러)를 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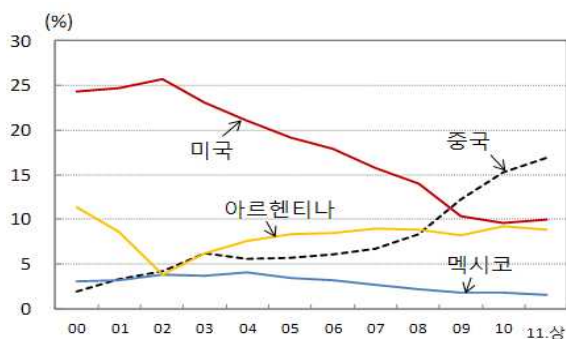
— 2011년 들어서는 브라질에 대한 FDI도 자동차·통신 등으로 다각화를 모색*함

* 중국의 Chery는 브라질에 4억달러 규모의 자동차 공장 설립을 계획하고 있으며 통신업체 ZTE와 Huawei도 각각 2억, 3억의 R&D 투자를 계획중임. 그러나 Chery는 최근 브라질의 자동차 수입관세 인상에 반발하여 투자 취소를 고려한다고 선언

○ 중국 저가제품이 브라질의 인플레이션 압력을 완화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는 한편 중국의 대브라질 수출품중 50%에 달하는 자본재는 브라질 제조업의 경쟁력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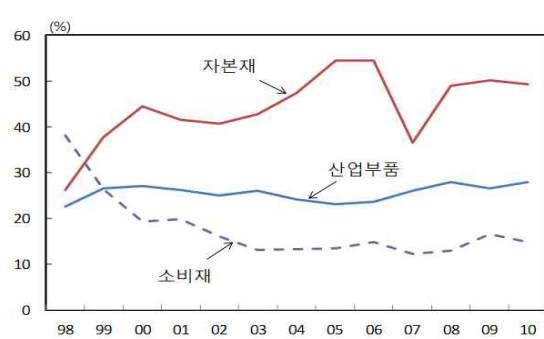
* 앞으로도 중국은 브라질의 2014년 월드컵, 2016년 올림픽 개최를 위한 인프라 건설을 지원할 수 있다는 입장

브라질의 수출국 비중



자료: CEIC

중국의 대 브라질 수출품 비중



자료: UN Comtrade

1 양국의 환율논쟁에 대한 평가

□ 위안화가 저평가되었다는 입장이 국제적으로 설득력을 얻고 있으나 브라질의 헤알화 가치상승과 제조업 기반 약화는 물가안정 우선의 자원수입 관리, 낮은 투자율 등 브라질 내부사정에도 크게 기인하는 것으로 평가

- 이에 따라 금번 논쟁은 브라질이 내부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위안화 저평가에 따른 보호주의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미국의 입장으로 선회하면서 촉발된 측면이 강함

(국제적으로 위안화 저평가 인식이 우세)

□ 위안화 저평가 여부에 대해서는 이견이 존재*하나 그동안 다수의 연구자와 IMF 등 국제기구는 위안화가 중국의 경제력에 비해 저평가된 것으로 분석

* 골드만삭스는 위안화와 헤알화가 2011.11월 각각 3%, 41.6% 고평가되었다고 분석(The Global FX Monthly Analyst, 무역가중환율 기준)하기도 하였음

- 환율 수준의 적정여부는 평가방법에 따라 달라지나 Glodstein-Lardy(기초수지접근법)는 위안화가 20~25%(2008년말 기준), Subramanian(구매력평가 접근법)은 31.3%(2009년말 기준) 저평가되었다고 분석(Cheung)

- 피터슨 연구소는 2011.10월말 위안화의 실질실효환율(REER)이 기초균형환율(FEER)* 대비 10.6% 저평가(헤알화는 5.2% 고평가)된 것으로 분석

* 경상수지 접근법에 근거한 대외 불균형과 자본유출입이 지속가능한 환율

주요국 환율수준 평가

(2011.10월말 기준)

	중국	브라질	인도	칠레	아르헨티나
실질실효환율(A) ¹⁾	118.4	123.6	106.8	104.2	85.3
기초균형환율(B) ¹⁾	131.0	117.1	109.3	104.4	80.7
환율과리(C,%) ¹⁾²⁾	10.6	-5.2	2.4	0.2	-5.4

주: 1) 2007=100 2) C=(B-A)/A로 (+)는 저평가 (-)는 고평가를 의미

자료: 피터슨연구소

- IMF의 전총재인 스트로스-칸(Strauss-Kahn)은 위안화가 20% 평가절상되어도 선진국의 무역적자를 해결할 수 없지만 위안화가 심각하게 저평가되어 있다고 언급(Reuters, 2010.10.6일)

(브라질의 헤알화 가치상승과 산업 경쟁력 약화는 내부사정에도 기인)

□ 헤알화의 가파른 가치상승*은 브라질 정부가 화폐가치 상승을 용인하면서 물가를 안정시켜 온 데다 브라질의 높은 금융시장 개방도 및 고금리로 투기자본이 대거 유입된 데 크게 기인

* 중국현대국제관계연구원 세계경제연구소 소장 천핑잉(陳鳳英)은 위안화 저평가보다는 헤알화 가치상승 문제가 더 심각하다고 언급(11.17일)

○ 수출액의 40%가 구리인 칠레*가 안정기금을 적절히 운용하여 자국 화폐가치의 상승을 방어한 데 비해 브라질은 자원수입을 재정지출 확대 및 대외부채 상환에 활용하면서 헤알화 가치상승을 용인

* 칠레는 경제사회안정기금(2006.12월 60억달러, 2011.10월 218억달러, 구리수입)에 매년 재정수입과 GDP에 연동된 일정액을 적립하여 자원수입을 불태화하는 방법으로 화폐가치절상을 방지하였음. 러시아, 노르웨이 등 대부분의 자원부국들은 네덜란드병을 피하기 위해 안정기금을 운용

— 브라질은 환율안정을 위해 2008년 국부펀드(Brazil Sovereign Wealth Fund, 2008.12월 80억달러 → 2011.10월 113억달러)를 설립했으나 펀드수입의 안정적인 확보장치 미흡 등으로 기금의 신장세가 미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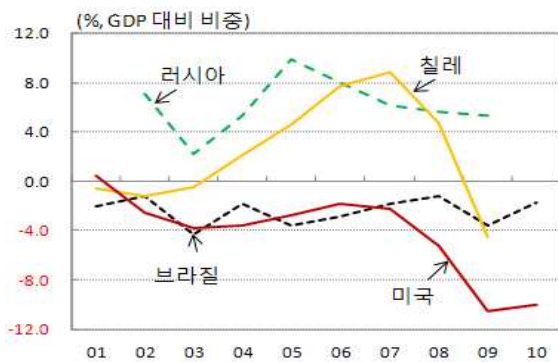
— 룰라정부는 원자재 수출로부터 발생한 수입(收入)을 환율방어 대신 정부 소비 확대를 통한 소득불균형 해소* 및 대외부채 상환**을 위해 활용하고, 헤알화 절상을 수용하면서 인플레이션 압력을 완화***하는 데 치중

* 룰라정부가 사회보장정책을 확대한 결과 지니계수(0~1사이의 값으로 1에 가까울수록 소득불평등도가 높음)가 2001년 58.7에서 2009년 53.9로 감소

** 대외부채의 GNI 대비 비율이 2002년 47.2%에서 2010년 17.9%로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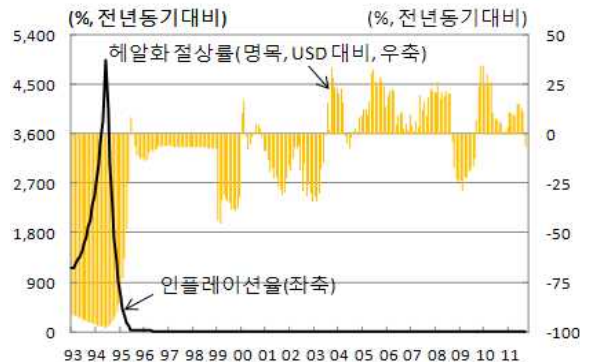
*** 브라질은 90년대 초의 초인플레이션 경험때문에 99년 이후 인플레이션 타게팅을 도입, 정책금리를 높게 유지하는 등 인플레이션 억제 의지가 강함

주요국 재정수지



자료: World Bank, CEIC

브라질 인플레이션



자료: CEI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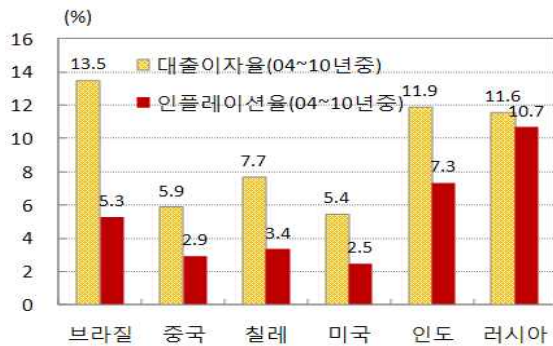
□ 제조업의 경쟁력 약화는 낮은 투자율에 따른 인프라시설의 낙후, 높은 임금수준 등에 주로 기인

○ 낮은 저축률에 따른 자본 부족 등으로 금리가 높아 도로, 항만 등 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저조

— 중국에 비해 거리상 대미·대유럽 수출에 장점이 있음에도 운송 및 수출비용이 크게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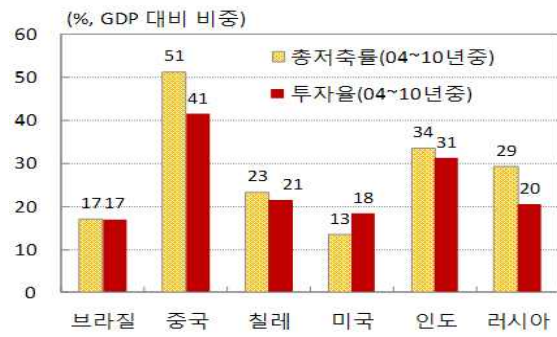
■ 컨테이너당 수출비용(달러) (World Bank)	브라질	인도	칠레	한국	중국
	1,790	1,055	745	790	500

주요국 인플레이션 및 금리



자료: CEIC, World Bank

주요국 저축률 및 투자율



자료: CEIC

○ 제조업 시간당 임금도 다른 신흥경제국에 비해 크게 높은 수준임

■ 제조업 시간당 임금(달러) (미국 노동통계국)	브라질	중국	인도
	8.3(2009년)	1.4(2008년)	1.2(2007년)

② 시사점

□ 중·미간 환율 논쟁이 중국대 다자간 영역으로 확대됨에 따라 향후 위안화 절상 압력이 높아지고, 국가간 무역마찰이 격화될 전망이며 국제무역에서도 보호주의 기조가 심화될 가능성이 증대

(위안화 절상압력 증대)

□ 환율논쟁이 중국과 미국간 논쟁*에서 중국 대 다수국으로 확대됨에 따라 향후 위안화 환율문제가 보다 빈번히 제기될 가능성이 커지고 위안화 절상압력도 증대될 전망

* 미국기업협회가 2010.3월 중국이 위안화의 실질적인 미달러화페그제를 포기하지 않을 경우 일방(환율조작국지정, 위안화 저평가를 보조금 지급으로 취급, 중국에 수입관세 인상) 양국간 및 다자간 정책(WTO하 환율 합의, IMF의 행동 촉구, G20간 명시적 규범 협상) 등 더 큰 제재가 중국에 가해질 것임을 언급한 이후 2010.6월 중국은 위안화 환율의 유연성을 확대하는 조치를 실시

(신흥경제국간 공조에서 경쟁으로)

- 이번 논쟁은 또한 선진국 경제성장이 둔화된 상태에서 향후 신흥경제국 내에서도 경제주도권이 분산되고 경쟁이 격화될 것임을 시사
 - 최근 브릭스 국가들은 선진국에 대응해 협조체제를 유지하면서도 자국의 당면과제(인도 고물가·저투자, 브라질 제조업 기반 파괴 등) 해결을 우선으로 하는 모습을 보임*
 - * 브릭스 국가간 역사적, 지리적 공통점이 적은 데다 이들간 합의에 대한 법적 구속력도 존재하지 않아 전문가들은 브릭스 정상회담이 실질적인 합의가 목적이 아닌 정치적 연출에 불과하다고 평가(Economist, 2010.4월)
 - 최근 선진국 경제가 둔화되면서 신흥경제국 상호간 수출경쟁이 격화되고 있으며 산업*, 정치**, FDI*** 등 다방면에 걸친 주도권 다툼이 본격화
 - * 브라질 정부는 헤알화 강제로 경쟁력을 잃은 제조업 분야(의류, 신발, 가구)에 대해 2012년 말까지 세금을 감면해 줄 예정
 - ** 브라질은 UN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을 원하고 있으나 중국은 일본을 의식하여 이를 반대하고 있으며, 금년 9월에는 중국과 인도간 인도양·남중국해 분쟁이 점화됨
 - *** 인도와 브라질은 모두 저투자에 직면해 있어 FDI 유치에서 적극적으로 경쟁

(국제무역에서 보호주의 심화)

- 향후 국제무역에서 수출 보조금 지급, 반덤핑 규제 강화 등 보호주의 정책기조가 심화될 가능성이 존재
 - 미국이 중국산 태양광 전지에 대한 반덤핑·반보조금 조사에 착수한 데다 브라질도 중국의 저가 강철관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톤당 743달러, 11.9월)하고 수입차에 대한 관세도 30% 인상(11.10월)
 - 미국의 조사착수 이후 중국 태양광 패널업체가 미국에 집단 반발하였으며 천더밍 중국 상무부 장관도 자국 상품에 대해 보호주의를 취하는 국가에는 보복하겠다고 언급(11.30일)
 - 중국에 대한 경계감이 자원부국 및 여타 신흥경제국에 광범위하게 잠재

<참고자료>

- 권승혁, “최근 일본의 산업공동화 우려 증대 배경과 전망”, 한국은행 국제경제정보 제 2011-42호, 2011.9월
- 중국·브라질기업가협회, “Chinese Investments in Brazil”, 2011.5월
- 최선욱, “브라질, 중국 투자가 밀려온다”, KOTRA, 2011.3월
- Alicia Garcia Herrero and Matt Ferchen, “Export dependence: If China stops, then what?”, 2011.9월
- Anthony Peter SPANAKOS, “China and Brazil: Potential allies or just BRICs in the wall”, Montclair State University, 2009년
- Bernanke Ben, “The global saving glut and the U.S current account deficit”, Sandridge Lecture, Virginia Association of Economics, FRB, 2005년
- Carlos Pereira, Joao Augusto de Castro Neves, “Brazil and China: South-south partnership or north-south competition?”, Foreign Policy at BROOKINGS, 2011.3월
- Cheung, Yin-Wong, Menzie Chinn and Eiji Fuji, “China’s current account and exchange rat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09년
- Cline, William, and John Williamson, “Estimates of the equilibrium exchange rate of the Renminbi?”, Peterso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155-165, 2008년
- Geoff Dyer, “Brazil: All in Samba”, Gavekal China Economic Quarterly, 2011.9월
- IMF Country Report, “People’s Republic of China: Spillover report for the 2011 article IV consultation and selected issues - Impact on China’s competition: Brazil and Mexico”, 2011.6월
- Patrick A.Messerlin, “Should Europe Join the US in condemning Chinese Currency Manipulation?”, Sciences Po, 2010.4월
- Philip I. Levy, “US policy approaches to Chinese currency”, 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The US-Sino currency dispute, 165-169, 2010.3월
- Renato Baumann, “Some recent features of Brazil-China economic relations”, CEOAL, 2009.4월
- The economist, "The trillion-dollar club", The BRICs, 2010.4월
- Thierry Bracke and Michael Fidora, Global liquidity glut or global savings glut?, ECB Working Paper, 2008.6월
- William R.Cline and John Williamson, “The Current currency situation”, Peterso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2011.11월
- Yin-Wong Cheung, Menzie D. Chinn, Eiji Fujii, “Measuring misalignment: latest estimates for the Chinese Yuan”, 2010.4월